



송도럭스오션SK뷰

SK에코플랜트

테마정원·친환경으로 랜드마크 도약



SK에코플랜트가 시공한 인천 연수구 송도동 '송도럭스오션SK뷰'는 지하 2층~지상 49층, 7개동, 총 1114가구 규모다. 타입별로 보면 ▲84㎡ 1002가구 ▲130㎡ 88가구 ▲88㎡T 8가구 ▲96㎡T 2가구 ▲97㎡T 2가구 ▲104㎡T 2가구 ▲105㎡T 2가구 ▲137㎡T 2가구 ▲139㎡T 2가구 ▲141㎡T 2가구 ▲143㎡T 2가구 등으로 구성됐다.

송도럭스오션SK뷰는 대단지 규모에 걸맞는 다양한 테마의 정원과 넓은 필드 등을 갖췄다. '브랜드혁신대상'의 배경이 됐다.

클레이정원은 따뜻함을 주는 점토벽돌 가벽을 이용한 색다른 느낌의 정원이다. 북카페정원은 북카페 주변 흐르는 물소리와 아름다운 조명을 느끼며 잔디광장의 경치를 느낄 수 있는 휴게시설이다. 독서정원은 실내 북카페를 나와 야외에서 차 한잔과 독서를 할 수 있는 정원이다.

비오토피아 가든은 자연의 5대 요소인 물, 돌, 바람, 나무, 빛을 이용한 친환경 공간이다. 조형파고라 아래에서 거대한 석가산과 팽나무, 잔디광장 등 다양한 경관을 감상할 수 있다. 코지정원에서는 계절따라 변화하는 단풍나무 아래 넓은 잔디광장과 북카페와 비오토피아 가든을 바라볼 수 있다.

오크정원은 대왕참나무로 둘러싸인 휴게공간이다.

/안상미 기자 smahn1@metroseoul.co.kr



분당 아테라

금호건설

암석원·수경시설 품은 '예술 조경 단지'

금호건설이 시공한 경기 성남시 분당구 야탑동 '분당 아테라'는 지하 3층~지상 21층, 4개동, 총 242가구 규모다. 전용면적별로는 ▲74㎡ 71세대 ▲84㎡A 71세대 ▲84㎡B 30세대 ▲84㎡C 70세대 등이다. 분당 아테라는 성남시가 기존 공영주차장 부지를 주택 용지로 전환하면서 들어섰다.

금호건설은 아테라만의 정체성을 살려 암석원과 수경시설, 미술작품 등 예술적 감성이 녹아든 조경 특화를 적용했다.

탐골공원을 걷다보면 공원의 일부인듯한 벽화가 단지의 경계다. 벽화는 바다의 파도, 물의 흐름, 파동, 산의 형세, 바람의 모습 등 자연의 다채로운 형태들을 표현해 새로운 에너지를 느낄 수 있도록 했다.

벽화에서 단지 입구쪽으로는 가면 웅장한 자연의 경관을 그대로 옮겨와 조성한 석가산이 나온다. 기암괴석과 조화로운 수목이 공존하는 공간에서 산수화 같은 자연풍경을 감상할 수 있다. 조경혁신부분에서 높은 점수를 받았다.

단지 내로 올라가면 필로티와 연계한 테마 정원과 수경시설이 나온다. 공원 속 식물원처럼 출입구 쪽으로는 대형목으로 식재를 하고, 안쪽으로는 사계절 경관을 즐길 수 있는 초화류를 배치했다. 어린이들이 뛰어놀 수 있는 놀이터 역시 자연을 모티브로 했다.

/안상미 기자



더샵 일산퍼스트월드

포스코이앤씨

다채로운 특화공간으로 '주거 품격' 높여



포스코이앤씨가 시공한 경기 고양시 일산동구 풍동 '더샵 일산퍼스트월드'는 총 2090가구 규모다. 1단지는 지하 3층~지상 최고 36층 8개 동, 2단지는 지하 2층~지상 최고 36층 6개 동, 3단지는 지하 3층~지상 최고 34층 4개 동이다. 전용면적 64~84㎡ 등 중소형 위주로 구성됐다. 1, 2단지는 풍산역, 3단지는 백마역과 인접했다.

블루밍라운지는 단지 속 작은 정원 같은 휴식처다. 곡선 형태의 하얀 구조물과 돌담이 어우러져 아늑한 분위기를 자아내고 붉은 파라솔과 벤치가 배치돼 입주민들이 편안히 머물 수 있는 공간을 완성한다. 그린어스그라운드스 친환경 주민운동 공간이며, 네이처테라스는 단지의 품격을 한층 높여주는 여유로운 휴식의 무대다. 다양한 커뮤니티 공간으로 '커뮤니티대상'에 뽑혔다.

뷰테라스는 단지의 풍경을 가장 드라마틱하게 감상할 수 있는 공간이다. 바닥에는 조형적 감각이 돋보이는 조약돌 모양의 좌석이 놓여 있어 여유롭게 앉아 사색을 즐기거나 휴식을 취하기 좋다.

미라지포레는 단지 속에서 자연의 깊이 체험할 수 있는 친환경 정원이다. 불규칙하게 놓인 돌과 울창한 초목이 어우러져 숲길을 연상시키며 곳곳에 심어진 나무는 계절의 변화를 고스란히 담아낸다.

/안상미 기자



신검단중앙역 풍경채 어바니티 2차

제일건설

전통미와 현대 조형미 더한 감성 돋보여

제일건설이 시공한 '신검단중앙역 풍경채 어바니티 2차'는 지하 2층~지상 최고 29층, 17개 동, 전용면적 74~84~110㎡ 총 1734가구로 구성됐다. 단지 내에 어린이집이 위치해 있고, 단지 앞에 검단3고등학교가 오는 2027년 개교 예정이다.

단지 중앙에 조성된 '물결마당'은 유려한 곡선의 포장 패턴과 넉넉한 휴게 공간이 어우러졌다. 바다 곳곳에는 물줄기가 분사되는 분수 설비가 숨겨져 있어 계절에 따라 색다른 분위기를 자아내며 아이들의 놀이 공간으로도 활용된다. '힐링정원'은 바쁜 일상 속에서 잠시 머물며 자연을 느낄 수 있는 여유를 선사한다. 곡선형으로 조성된 산책로를 따라 걷다 보면 짙은 초록의 수목과 풍성한 초화류가 시야를 감싼다.

단지의 상징목은 제주도에서 온 팽나무이다. 성산일출봉 옆 구좌읍 종달리라는 해변가 절벽 위에서 190년을 살다가 이사 온 이 팽나무는 2021년부터 새로운 곳에서 적응하는 훈련을 하고 단지에 오게 됐다.

'팽나무마당'은 단지 내 조경의 중심축 같은 공간으로 굵은 줄기를 자랑하는 팽나무들이 마치 하나의 숲처럼 들어서 있다. 고요하게 뻗은 수목들과 조화롭게 어우러진 녹음, 화산석을 쌓아 만든 정원형 구조물 등은 전통적 아름다움과 현대적 설계가 절묘하게 결합했다. '진경산수원'은 전통 회화 속 산수경관을 모티브로 조성된 테마정원이다.

/안상미 기자

